

精神機能所在로서의 뇌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근거 연구

김용훈 · 김인락 · 지규용*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 한방바이오연구소

A Study on Interpretative Basis of Brain as a Place of Mental Function in Oriental Medicine

Yong Hun Kim, In Rak Kim, Gyoo Yong Chi*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 Biomedical Research Center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This treatise is written in order to solve the important contradiction between the two theories; in oriental medicine psychological function is responsible for heart, but in western one it is responsible for brain. So we take the methods of studying in the aspects o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MC) and visceral manifestation theory(VMT, 藏象論) and others about two organs-heart and brain. Brain(頭腦) is preferred to understand as a structure which is manifesting mental activity of heart. So the brain can be named with external heart(外心) corresponding to the relation of kidney and external kidney(外腎). Saying conversely, the nutritional foundation of the mental function is the blood of heart, but the enlightening and insightful features of mentality make it's own residence move to the organ in the uppermost and positive site, that is head. And the close relationships on mental functions between heart and brain were discussed in various aspects, like investigation on east and west etymological literature, or Jiu gong(九宮) and Taoist theory as well as MC and VMT, These understandings can make us know about the pathology of brain by itself. It has deep relations with heart fire and heart blood and kidney essence, and gastrointestinal function and liver with lung additionally. In another point, it makes the highly complicated psychological functions to be explained free from body relatively, and so can do a role in the complement of the strict 5 viscera theory.

Key words : brain, heart, external heart,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서론

서양의학이 동양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 전통적인 의학이론과 통합연구되면서 매우 곤란한 문제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腦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서양의학에서는 신경계와 호르몬계의 기능을 통합하여 조절하는 동시에 고도의 정신사유기능이나 의식활동도 모두 腦에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에 한의학에서는 前者를 經絡과 腎·命門·三焦등에 관련짓거나 後者를 心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의학에서의 腦는 인체를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司壽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생리병리기술도 매우 자세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奇恒之腑로 인식되며 생리기능과 병리변화도 매우 간략하게 서술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일반론이다. 그렇

지만 현대과학의 관찰수준이 향상되면서 뇌의 의학적 역할과 비중이 점증하는 학문추세에 따라 한의학에서도 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새로운 인식론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周易>에서는 우주변화의 본질과 현상에 관하여 形而上과 形而下로 나누고 있는데 동양철학사를 검토해 보면 형이상자인 불변의 道 혹은 理를 중시하는 경향과 형이하자인 器(形) 혹은 그 질료라 할 수 있는 氣의 변화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양분된다. 한편 道家에서는 이들 세 요소를 끌고루 흡수하여 精氣神을 인체의 三寶로 규정하고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고 규정하였다¹⁾.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여 氣를 싣고 遊行하는 實物인 血을 추가하여 精神氣血의 네 요소를 인체생리물질의 주축으로 설정²⁾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네가지는 항상 相依相成하면서 잠시도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그간의 한의학사를 검토해 보면 모든 有形物을 움직이는 主體로서, 神志活動의 결과가 반영되는 結果로서 氣가 상대적으로 중시되어 왔으며 70

* 교신저자 : 지규용,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cgyu@dongeui.ac.kr, Tel: 051-850-8659
· 접수: 2002/07/11 · 수정: 2002/08/31 · 채택: 2002/09/25

년대 이후 서구과학적 접근과정을 보더라도 거의 “氣”라는 未知의 對象에 集中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氣는 ‘形’이라는 거꾸집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며 만물은 반드시 形에 의해 규정된다³⁾. 실제로 <東醫寶鑑>에서도 이 形과 氣가 調和를 이루는 상태에 따라 壽夭가 정해진다고 보고 <靈樞·壽夭剛柔>篇을 인용하여 傍證하고 있다. 또한 形氣間에 相勝關係가 발생하면 平人과 病人의 각 경우에 따라 壽夭가 달라지는데 同篇의 “平人而氣勝形者壽, 病人而形肉脫 氣勝形者死, 形勝氣者危矣”라 함이 그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의학에서 氣의 의미는 항상 원리적으로 形과의 상관관계에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說文解字>에 의하면 “形, 象也”라 하였고, 段玉裁는 “<易>에 在天成象 在地成形이라 나누어 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바꾸어 부를 수도 있는 것”이라 注하고 있다⁴⁾. 이러한 形象에 관한 言及은 文獻上 꽤 멀리 소급할 수 있는데, <易傳>에 의하면 伏羲는 離卦의 象을 취하여 그물을 만들고, 神農은 益卦의 象을 취하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었고, 黃帝와 堯舜氏는 渙卦의 象을 취하여 배와 노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象은 形을 낳고 그 形에서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象과 形과 機能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이러한 <周易>의 擬象制器論과 함께 <內經>의 無器不有論은 形氣相關論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즉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器는 生化가 일어나는 집이며 이 器가 散하면 分裂되어 生化도 그치게 된다”고 함이 그것인데, 氣의 生化는 그에 맞는 器宇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의학의 생리이론이 臟腑經絡과 精神氣血을 중심으로 하고 表裏內外에 따라 本末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頭腦自體는 해석학적으로 臟腑개념에 종속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한의학의 인식론적 범위를 일탈하지 않으면서 頭腦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形象論 또는 形氣論의 관점을 새로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腦의 字義를 文字學的·辭典的으로 검토하면서 九宮八風, 道家等の 다양한 측면에서 腦의 意義를 분석함으로써 뇌의 의미를 확대하고자 한다.

본 론

1.心和腦의 의미에 대한 다면적 분석

1) <內經>에 소개된 腦와 心의 地位와 機能

<素問·五藏別論>을 보면 “黃帝問曰, 余聞方士, 或以腦髓爲藏, 或以腸胃爲藏, 或以爲府, 敢問更相反, 皆自謂是, …岐伯對曰, 腦髓骨脈膽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寫, 名曰奇恒之府”라 하였는데 이것은 腦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內經> 成書 當時의 實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腦를 흑자는 臟이라고도 하고 흑자는 腑라고도 하였는데 岐伯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들은 臟이나 腑가 아닌 제 3의 개념, 즉 奇恒之腑라는 새로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素問·示從容論>에서 “五藏六府, 膽胃大小腸, 脾胞膀胱腦髓, 涕唾哭泣悲哀, 水所從行, 此皆人之所生”이라 하고 <素問·解精微論>에서도 “泣涕者, 腦也, 腦者, 陰也, 髓者, 骨之充也, 故腦滲爲涕. 志者, 骨之主也. 是以水流而涕從之者, 其行類

也”라 하여 감정변화가 생길 때 水液의 변화물인 泣涕를 만들고 저장하며 흐르게 하는 근원이기도 하다. 또 腦는 오직 髓를 담은 그릇으로만 인식하는 논법이 있는데 <素問·五藏生成>에서 “諸髓者皆屬於腦”이라 하고, <素問·奇病論>에서 “岐伯曰, 當有所犯大寒, 內至骨髓, 髓者, 以腦爲主, 腦逆, 故令頭痛, 齒亦痛, 病名曰厥逆”이라 함이 그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靈樞·海論>에서 腦는 髓海이며 髓海가 有餘하면 輕動多力하여 自過其度하고 髓海가 不足하면 腦轉耳鳴 脛痠眩冒 目無所見 懈怠安臥하다 하여 腦機能이 視覺, 聽覺 및 動作, 精神狀態와 관계함을 기술하였다. 또한 <靈樞·經脈>을 보면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이라 하였는데 이상에서 腦가 髓와 精의 관계, 感覺의 靈敏性등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清代에 이르면 西醫解剖生理學의 영향을 받아 汪昂, 王清任등은 사람의 思维, 記憶, 言語등의 기능까지 腦에 귀속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전에 대해서는 역시 精과 腦髓에서 찾고 있지만 서의학이론과 중의학이론의 단순한 조립에 불과하여 일관된 논리를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露示시킨다. 어쨌든 한의학에서의 腦는 髓海로서 파악되고 있으며 이의 盛衰에 따라 頭部 感覺과 四肢動作 및 動作時의 정신상태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으며 본질적인 정신사유와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 않거나 논리적 설명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內經>에 紹介된 心의 개념은 의식활동의 주체로서의 ‘마음’이기도 하고 五臟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둘은 동시적이어서 오장으로서의 心은 <素問·靈蘭秘典論>에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이라 한 것처럼 군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의 주관자가 됨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心>에 의하면 李梴은 心을 다시 血肉之心과 神明之心으로 나누고 萬事萬物을 主宰하며 虛靈不昧한 것이 血肉으로서의 심장 속에 구현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古來로 고도의 정신활동 즉 사유, 감정, 의식, 인식등의 기능은 모두 心과 연관시켰는데 예를 들면 <孟子·告子上>에 “心之官則思”라 한 것이나 <靈樞·本神>의 “所以任物者謂之心”과 ‘心主神明’, ‘心藏神’등이 그것이다. 또 虛靈不昧란 본래 朱熹가 <大學> 經一章의 ‘明德’을 설명한 말로 確然明白한 本性으로서의 心 또는 理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한의학과 적어도 전국시대 이후에 정신기능의 주체는 腦에 있는 것이 아니고 心에 있다⁵⁾는 것을 알 수 있다. 腦는 腎精과 髓가 부족할 때 생기는 병증이나, 혹은 감정활동으로 눈물이나 콧물이 나오는 현상 등과 관련지어 설명되고 있으며 생리학적 지위도 확고하지 못하여 臟腑와 비교할 때 단지 부수적인 지위와 기능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腦와 心의 문자학적 고찰

范行准은 그의 <中國病史新義>⁶⁾에서 腦와 腦髓, 腦와 心機能의 치환과정 등에 대해 세밀한 고증을 행하였다. 그는 춘추전국시대부터 秦漢시대에 이르기까지 <左傳>, <禮記>, <韓詩外傳>등에서 函과 腦字가 互用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적어도 西漢 이후에는 두 글자가 동일하게 쓰인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左傳> 僖公二十八年에 “楚子伏己而腦其腦”라 한 것이나 <說苑·辨物篇>에는 “人生三年而函合”이라 하고 <韓詩外傳>卷一에

서는 "腦髓"이라 하여 서로 혼용되고 있다. <說文解字>에 의하면 囟은 "頭會(七腦)蓋也"라 하여 頭蓋骨을 의미한다. 囟자 위의 '은 頂骨 중앙의 융기부분인 頂結節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생아의 머리에 드물게 난 털을 의미하기도 하며 아래의 몸통은 腦殼과 그 속에 있는 腦髓를 의미한다. 또 腦의 오른 쪽에 있는 ≪은 囟門의 부위에 수북이 난 털(稠髮)을 의미한다. 또 <集韻>上聲五의 "準部十七"에서 "囟은 思忍切이며 소아의 머리가 모인 곳(小兒頭會)이다" 라고 하였으며 <釋名·卷二釋形體第八>에서는 "囟은 巖이니 태어난 곳이 높다높음이다"라 하고 또 "산이 높게 물러 봉우리진 곳을 巖(산이 모인 모양, 종)이라 한다" 하였으며 王筠의 <說文釋例>卷二에서는 <釋山碑>에 근거하여 囟을 囟이라 하고 설명하기를 "머릿골이 아직 합쳐지기 전에는 氣가 鼓蕩하는 때이기 때문에 융기하는 것으로 상징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頂', '顛' 등은 모두 囟을 音母로 사용하고 있어서 해부학적 異名 同物이다. 예컨대 頂을 頂로 표시한다거나 정신이상을 나타내는 병을 '顛病'이라 하다가 나중에 疒을 더하여 '癡'이라 한 것이 그 예이다. 또 '思'는 본래 囟과 卅을 합하여 '卅'라 썼으며 혹은 '𠂔'라 하여 양손으로 뇌를 받친 채 생각에 골몰한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다만 아랫 쪽의 卅이 傳寫過程中 잘못 바뀌어 心으로 변하여 현재의 思로 굳어진 것이다. 이와 비슷한 글자로는 '顛'자가 있는데 <集韻>去聲十二에서 "머리를 기울인 모양(傾頭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머리를 가웃거리면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의 나타낸다. 이 외에 范行准은 細, 微, 總, 總(시마복시) 등에는 고문자학적으로 볼 때 腦髓와 척수신경을 상징하는 字形變遷이 있었다고 하며, 兒는 古文에 兒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說文>에 "囟未合也"라 하여 아이의 泉門이 아직 닫히지 않고 智力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巖(새끼새)의 위에 있는 산도 소아를 뜻하는 상형문이 변천된 것이며 '小'의 뜻을 갖고 있어서 痴弱無知한 모양을 나타낸다. 이상의 여러 경우에서 살펴본 것처럼 戰國時代 이전 혹은 <內經>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腦가 사유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心은 그릇(胸膜) 안에 심장을 安置한 모양, 혹은 兪통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글자로 혈액이 담겨있으면서 박동하는 기관을 가리킨다⁷⁾.

3) 精神思惟機能과 心

고문자학적 고증에도 불구하고 <內經>에서는 精神思惟機能을 腦가 아닌 心의 管轄下에 두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과학 지식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한 배경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봉건군주 중심의 정치체제에 부응하기 위한 합목적적 해석이었는데 별 이견이 없다. 예컨대 <荀子·天論>에서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謂天"이라거나 <管子·心術上>에서 "心之在體 君之位也"라 하여 心이 생리기능상 군주의 지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전신의 四肢百骸九竅의 활동을 統攝한다는 논리를 전개함이 그것이다. 또한 <荀子>가 "心者 形之君也 而神明之主也"라 하였는데 <素問·靈蘭秘傳論>의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이라고 한 언급을 보면 정확히 동일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한편 <管子·水地>에서 "心爲思慮"라 한 것이나

<禮記·大學>에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라 한 것을 보면 우선은 '마음'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지만, <國語·鄭語>에 "目爲心視 耳爲心聽"이라 한 것을 보면 범행준이 설명한 것처럼 이미 관습적으로 '심장'의 의미도 포함한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군주로서의 心臟 개념 속에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九竅과 百體에 대한 제어기능을 부여한 것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예증이 바로 <素問·靈蘭秘傳論>의 "主不明 則十二官危"라는 언급이다. 즉 한 국가의 중심이자 極인 군주가 靈明하지 못하면 여타 여러 관직의 존재마저도 위태롭게 되듯이 한 形體의 중심인 심장이 병들어서 神明을 내지 못하면 그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이 모두 병들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서의학의 이론에 의하면 말초의 감각 및 운동신경에 대한 인식과 통제 뿐만 아니라 心理의 諸作用은 腦의 기능영역⁸⁾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도의 정신사유기능 중 예컨대 記憶은 事實記憶과 기술기억으로 나뉘는데 사실기억에는 시상, 변연계의 유두체와 편도체, 시상하부, 腦弓 등이 관여하고 기술기억에는 소뇌와 기저신경질의 하위구조인 尾狀核과 皮殼이 관여한다고 하며⁹⁾ 長期記憶의 貯藏機轉에 관여하는 腦細胞核中 DNA와 RNA의 생화학적 성질의 변화와 관련한 연구가 있다¹⁰⁾. 결국 한의학에서의 심기능의 전신적 조절과 통제의 기능은 현대 의학적으로 두뇌의 기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心과 腦의 의미관계를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서양에서 사용되는 사전적인 용법을 조사해 봄으로써 어떤 보편성이나 공통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4) 心과 heart의 辭典의 意味

漢字의 心은 영어의 heart에 해당한다. <康熙字典·心>에 의하면 心은 火臟으로서의 兪통의 의미와 形體를 부리는 主體로서의 마음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heart>¹⁾에 의하면 heart는 오목한 筋肉性 장기로서의 兪통의 의미와 감정이나 인격적인 속성의 근원 또는 센터로서의 마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

- 1) Function: noun. Etymology: Middle English hert, from Old English heorte; akin to Old High German herza heart, Latin cord-, cor, Greek kardia. Date: before 12th century
- 1 a : a hollow muscular organ of vertebrate animals that by its rhythmic contraction acts as a force pump maintaining the circulation of the blood b : a structure in an invertebrate animal functionally analogous to the vertebrate heart c : BREAST, BOSOM d : something resembling a heart in shape; specifically : a stylized representation of a heart
- 2 a : a playing card marked with a stylized figure of a red heart b plural : the suit comprising cards marked with hearts c plural but singular or plural in construction : a game in which the object is to avoid taking tricks containing hearts
- 3 a : PERSONALITY, DISPOSITION <a cold heart> b obsolete : INTELECT
- 4 : the emotional or moral as distinguished from the intellectual nature: as a : generous disposition : COMPASSION <a leader with heart> b : LOVE, AFFECTIONS <won her heart> c : COURAGE, ARDOR <never lost heart>
- 5 : one's innermost character, feelings, or inclinations <knew it in his heart> <a man after my own heart>
- 6 a : the central or innermost part : CENTER b : the essential or most vital part of something c : the younger central compact part of a leafy rosette (as a head of lettuce). (<http://www.m-w.com/dictionary>)

이 외에 한자와 영어에서 共히 心臟이 들어 있는 부위인 가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같다. 또한 心은 大火라 火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heart는 감정(emotions)의 근원이라고 보며 道德的 · 情緒의 特性, 性癖(disposition) 또는 사랑, 獻身(devotion), 同情(sympathy)등의 다양한 人道的인 감정들(humane feelings)을 의미하여 熱情이나 熱意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心火와 情熱이라는 屬性上的 유사점을 갖는다. 그리고 心과 heart는 모두 중앙(center)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동서양 모두에서 事物의 中心을 지칭하는데 사용한다. 한편 서로 다른 점으로는 心에는 根本 또는 本性의 의미가 있는데 heart에는 이러한 의미가 없다. 반면에 'head'를 보면 지성(intellect)의 영역적인 동시에 知的인 능력(mind, intellectual ability)을 가리키며 그 일부인 brain은 해부학적인 개념에 근거하여 중추신경기능을 담당하는 腦²⁾의 용법과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心이나 heart는 中心이라는 의미를 핵으로 하여 전자는 '인간을 이루는 본질적인 성분', 후자는 '인간으로서의 중심 감정'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意味群들이 形之君, 神明之主(荀子 解蔽篇)로서의 心概念을 형성하게 된 緣由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心에는 마음의 본성이라는 본질적 의미까지 포함하는데 반하여 heart에는 理性 또는 知性的의 부분을 제외한 熱情的인 感性만을 省略한다. 어쨌든 고대의 동서양에서는 정신과 감정영역의 기능소재를 心과 heart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¹¹⁾ 위에서 본 고문자학적 고증과도 합치된다.

실제로 근래에 출판된 한 논문¹²⁾에서 Jean Marx는 "Cholesterol has a bad reputation, and justifiably so, because elevated levels increase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s such as heart attack and stroke. But it may deserve even more condemnation. Accumulating evidence suggests that high cholesterol levels contribute to Alzheimer's disease as well"이라 하고 이에 관련된 여러 기전과 관점 및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점은 콜레스테롤의 심맥관계에 대한 危

害가 AD와 같은 정신질환의 형성에도 똑같이 기여한다고 본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中風과 같은 여러 心血管疾患에서 나타나며 한의학에서는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다.

2. 腦爲外心說 主張의 背景과 論理

그러면 상술한 腦의 機能에 대한 동양의 고대인식과 봉건군주제 및 五行論이 성립된 이후의 心機能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적어도 동양에서는 四肢百體에 대한 제어조절 및 고차원적인 정신 심리기능은 양쪽 모두에 나름대로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현재 한의학에서는 이론상 心臟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대지식·특히 서의해부생리학 지식¹³⁾과의 차이를 한의학에서 무리없이 소화해내는 문제가 남아있다. 心臟 自體는 두터운 근육과 관막으로 되어 있어 主血脈하기 위한 構造이며 主神明하기 위한 구조로서는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에서 神明機能을 腦에 두지 않고 心臟에 두는 이유에 대해 보통 藏象學的인 論據 즉 五臟中心의 이론체계에서 찾는다. 그렇지만 여전히 腦와 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정신기능의 所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저자는 腦의 생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은 네가지 측면에서 考究하여 유추하고자 한다.

1) 形態學的인 側面

인체의 전체구조를 살펴보면 主要內藏器官인 五臟六腑와 이를 담기 위한 四方形의 胸腹腔 즉 體幹이 있고 이 기본구조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四肢가 있으며 체간의 上下 正中央部에 上下方으로 돌출한 腦와 陰莖 및 陰囊이 있다. 腦와 陰囊은 위치상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똑같이 腔構造로써 所藏物이 있다. 이들은 체간부와 어울려 六角構造를 이루는데 근골격조직도 대체로 이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腦와 陰囊構造物들은 독특한 대칭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陰囊構造物들은 전통적으로 外腎이라 일컬어졌는데 腎이 北方水 즉 陰中之陰으로써 體腔의 最下深部に 존재한다. 이제 아래의 도형들 중 가장 내측의 마름모꼴을 중심으로 보면 外腎은 腎機能이 외부로 표출된 구조물 즉 腎의 外延物임을 의미하므로 곧장 腎位에서 下垂結氣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腎은 水臟이고 所藏인 精은 重濁有質하여 下方으로 가라앉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腦는 頭圓象天한 陽의 構造物로서 목(頸項)을 매개로 하여 체간에 이어져 있다. 心은 南方火 즉 陽中之陽으로써 체간의 최상부에 존재한다. 腦는 心이 맡고 있는 神明기능을 主司하는 바 心機能의 外部表出 즉 心의 外延物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곧장 心位에서 上聳結氣하여 이루어진다. 왜냐 하면 心은 火臟이고 所藏인 神은 輕清無形하여 上方으로 떠오르기(浮上) 때문이며 이와 반대로 有形質인 血은 橫散하여 心脈內를 流注한다.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肝生於左 肺藏於右
心部於表 腎治於裏
脾爲之使 胃爲之市
<素問 刺禁論>

2) Etymology: Middle English hed, from Old English hēafod; akin to Old High German houbit head, Latin caput Date: before 12th century. 1 : the upper or anterior division of the animal body that contains the brain, the chief sense organs, and the mouth. 2 a : the seat of the intellect : MIND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b : a person with respect to mental qualities <let wiser heads prevail> c : natural aptitude or talent <a good head for figures> d : mental or emotional control : POISE <a level head> e : HEADACHE

3) Etymology: Middle English, from Old English brægen; akin to Middle Low German bregen brain, and perhaps to Greek brechmos front part of the head. Date: before 12th century.

1 a : the portion of the vertebrate central nervous system that constitutes the organ of thought and neural coordination, includes all the higher nervous centers receiving stimuli from the sense organs and interpreting and correlating them to formulate the motor impulses, is made up of neurons and supporting and nutritive structures, is enclosed within the skull, and is continuous with the spinal cord through the foramen magnum b : a nervous center in invertebrates comparable in position and function to the vertebrate brain. 2 a (1) : INTELLECT, MIND (2) : intellectual endowment : INTELLIGENCE - often used in plural <plenty of brains in that family> b (1) : a very intelligent or intellectual person (2) : the chief planner of an organization or enterprise - usually used in plural. 3 : something that performs the functions of a brain; especially : an automatic device (as a computer) for control or compu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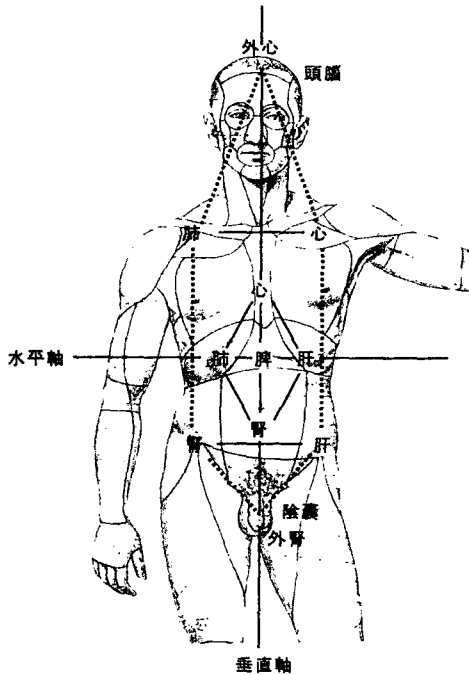


Fig. 1. Typological diagram of human body with lozenge and hexagon

이상의 그림과 같이 인체는 몇가지의 복합된 기하학적 형태를 갖고 있는데 가장 내부의 象數學的인 마름모꼴과 실제 체간 구조인 四角形, 그리고 腦와 外腎을 포함하는 六角形構造, 그리고 전체의 運動 兼 支持構造物인 四肢가 그것이며 이들 전체는 다시 腦 心 脾胃 腎 外腎을 잇는 中心垂直軸에 의해 좌우의 鏡對稱을 형성한다. 또 中土脾胃를 中心으로 心은 腎과 대응하고 腦는 外腎과 대응하며 肺는 肝과 대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五臟의 생리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精神의 작용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縱橫軸의 조화와 균형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整體의 상호작용이 생명현상의 유기적 통합성을 나타내는 한 증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형태학적인 대응과 대칭관계가 臟腑組織器官間的 重層的 상호관련성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토대가 되며 陰陽論과 五行論을 성립시키는 最根底가 된다고 생각된다.

2) 藏象學的인 側面

이러한 형태학적 상호대응을 통한 類比를 전제로 할 때, 腦는 髓海로서 精髓가 督脈을 따라 上昇하여 모여서 海를 이룬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北方陰位인 腎에 저장되어 있던 精이 會陰으로 출하여 尾閭關과 轆轤關, 玉枕關을 거쳐 最上의 陽位인 腦에 이르게¹⁴⁾ 上下의 顛敵와 會陰에서 각각 任督脈이 交會한다. 또한 腎이 藏精하지만 실제의 精所는 外腎인 陰囊에 있으며 心이 藏神하지만 실제의 神宮은 頭腦에 있다¹⁵⁾. 火는 炎上, 溫熱, 赤明, 熔化, 分散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불꽃이 타올라 스스로 빛을 내면서 다른 사물을 밝게 비추는 것이다. 그리고 心은 이러한 火氣를 주관한다. 한편 神은 자체의 明明한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물을 밝게 비출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인간의 情志는 항상 끝없이 上向하며 慾望이 積集되면 火氣를 만들게 된다. 이처럼 神은 火의 성질과 생리적, 병리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은데 이러한 性習의 相近이 神을 心에 배속케 하는 이론적 출발이 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공통속성을 수용하기 위한 器官의 所在는 논리적으로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血氣者 人之神也”라 하고 “血舍魂, 脈舍神”이라 하여 心中에서 藏神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血脈의 機能이 充盛하여야 하며 병리학적으로도 心血이 부족하면 두려움이나 놀람, 不安, 焦燥, 不眠, 淺眠, 多夢, 健忘등의 정신기능관련 증상들이 발생한다¹⁶⁾. 따라서 神의 작용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心血의 化生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外腎과 腦는 精神과 水火와 陰陽으로서의 實物이 존재하는 處所가 되며 重濁한 精이 背脊의 道路를 따라 상승하여 清虛한 神으로 化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神은 물질적 기반인 精을 상실하지 않고 氣化의 源泉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神의 지속적 主宰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精과 神은 相互交流하기도 하고 合一하기도 하는데 이는 心腎相交의 구체적인 實現을 의미하는 것이며, 仙家에서 大周天이라 하여 매우 중시하고 있는 運氣修鍊의 과정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는 <周易>의 卦象에 비유하면 未濟卦가 既濟卦로 之하는 象에 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신기능의 臟腑上의 主體는 분명히 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이 발휘되는 處(所在)는 腦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심과 신의 관계가 뇌와 外腎의 관계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外心이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3) <靈樞> 九宮概念에 의한 佐證

<靈樞·九宮八風>에서는 身形과 九野의 상응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頭首와 下竅의 대응관계가 드러난다. 該篇의 “請言身形之應九野也 左足應立春 其日戊寅己丑, 左脇應春分 其日乙卯, 左肩應立夏 其日戊辰己巳, 膺喉首頭應夏至 其日丙午, 右手應立秋 其日戊申己未, 右脇應秋分 其日辛酉, 右足應立冬 其日戊戌己亥, 尻尻下竅應冬至 其日壬子, 六府屬下五臟應中州…”라 함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身形과 筋氣의 對應만 설명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分野에 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東醫寶鑑>에서는 이 내용을 九宮八風說과 결합하여 하나의 도표로 표현하고 있다¹⁷⁾. 이 도표의 上方에는 南·離卦·夏至·上天宮·頭首가 속해 있고 下方에는 北·坎卦·冬至·葉蟄宮·尻尻下竅가 속해 있다. 이렇게 본다면 <靈樞>의 身形九野에 관한 인식은 인체가 臟腑中州를 기준으로 橫膈膜을 포함하는 左右脇을 수평축, 頭-尻를 관통하는 수직축, 左足-右手와 左肩-右足を 잇는 두 斜線軸이 서로 형상적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의 육각형부분). 이렇게 보면 頭-心-脾-腎-尻(陰)가 脾를 중심으로 上下位間 交叉對應하는 구조로써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腎의 尻陰에 대한 관계는 心의 頭腦에 대한 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上下對應構造는 <周易> 象傳이나 小象傳에서의 卦爻 解釋法에서도 보이는데 예컨대 上卦와 下卦의 서로 같은 위치의 爻가 陰爻와 陽爻라면 이는 ‘有應’ 혹은 ‘相應’이라 하고 모두 陰이거나 陽이어서 같다면 ‘無應’ 혹은 ‘不相應’이라 한다. 이러한 應에 대해 王弼은 <周易略例>에서 설명하기를 “夫應者 同志之

象也”라 하였고 <易緯·乾鑿度>에서는 “一卦六爻 중에서 삼획 이하를 地라 하고 사획 이상을 天이라 하는데 … 地의 아래(初爻)에서 動하면 天에서도 아래(四爻)가 動하고 地의 가운데(二爻)서 動하면 天에서도 가운데(五爻)가 動하며…이처럼 初爻와 四爻, 二爻와 五爻, 三爻와 上爻의 관계를 應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類似性은 爻位說이 본래 한 事物의 생장변화하는 현상이나 혹은 事物內的인 構造層次間的 屬性과 功用 등을 비유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며⁹⁾ 위 도형은 인체에 적용된 한 예일 뿐이다.

4) 道家에서의 腦와 心의 관계

<東醫寶鑑>은 道家 서적을 많이 인용하여 양생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精氣神을 卷頭에서 설명하여 정기신 保養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身形門의 丹田有三項을 보면 仙經을 인용하여 “腦爲髓海上丹田 心爲絳宮中丹田 膈下三寸爲下丹田 下丹田藏精之府也 中丹田藏神之府也 上丹田藏氣之府也”라 하여 神을 心과 관련시킨 반면 頭門의 頭爲天谷以藏神項에서는 正理書를 인용하여 “…人身中上有天谷泥丸 藏神之府也 中有應谷絳宮 藏氣之府也 下有虛谷關元 藏精之府也 天谷元官也 乃元神之室 靈性之所存…”이라 하여 神을 腦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心藏神理論과는 모순임에 틀림없지만 뒤집어 보면 心과 腦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이처럼 모순적인 설명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胸膈部에 心과 肺가 함께 있기 때문에 藏氣와 藏神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모순의 문제가 아니라 腦와 心이 모두 神을 含藏하며 神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점이다. 그러므로 道家의 관점에서도 腎과 外腎의 상호관계에 對應하여 腦를 外心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충분한 타당성과 이론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으로 규정한다면 단지 하나의 奇恒之腑로서만이 아니라 五臟중의 君主인 心臟과 직접 관통하는 지위와 자격을 가지며 神明機能에 대한 一次的 代理機構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논의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目的은 실상 다음과 같은 것이다.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정신과 방면의 질환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形身一體라는 도그마에 철저히 있기 때문에 정신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인 疾患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精神疾患들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治療方法이나 機轉들을 아직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프로이트와 융 이후로 意識·無意識·下意識·前意識·콤플렉스·꿈·歪曲·投射·神經症·解離·精神分裂等의 개념들을 통하여 독자적인 心理學과 精神科 領域을 발전시켜 상당한 經驗知識의 蓄積과 認識의 進歩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인식에 따른 정신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성공적인 치료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반면에 신경해부학적 인식의 진보에 따라 뇌의 특정한 질환이 정신과 감정의 기능에 직접 특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신의 이상이 전적으로 정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질병이나 내면적 성격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형체와 정신간의 복잡한 상호 함수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요컨대 이 논문은 기존 한의학에서 견지했던 딱딱한 藏象學의 도그마와 形身一體關係를 보다 느슨하게 하여 一面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정신영역을 設定하면서도 一面으로는 整體的인 統合性을 유지하는 進一步한 論理體系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차후에는 腦가 곧 外心이며 神之舍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腦의 구조와 생리기능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한의학적인 분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찰 결론

한의학에서 말하는 心主神志 및 그의 所藏인 神은 현대서양의 학에 의하면 대부분 頭腦에서 出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心主神明機能의 實質을 腦에서 代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형태학적으로나 장상학적으로 心火의 上出을 의미하며 이는 腎水가 下降하여 精을 藏하는 外腎을 이룬 것과 대비된다. 다시 말하면 각기의 本性에 따라 神의 虛明至微한 부분이 最上陽位에 居하고 精의 至靜至重한 부분이 最下陰位에 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腦를 外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로써 인체는 外心, 心, 脾胃, 腎, 外腎이 중앙의 縱軸을 이루며 좌우에서 간과 폐가 氣機昇降의 道路를 이루고 上下左右로 각기 陰陽對待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뇌에 어떤 器質의이거나 機能의인 異常이 발생하여도 정신기능에 변화가 발생하지만 그 根源인 心臟에 어떤 異常이 와도 主血脈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精神機能의 발현에도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腦病理를 이해하는데 있어 하나의 지침이 된다. 즉 뇌의 직접적인 生病理的 關鍵은 心火와 心血 및 腎精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 脾胃 그리고 肝肺等과의 差等的인 關聯性을 찾을 수 있다. 또한 腦를 外心

腦가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에서는 奇恒之府의 하나로써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고도의 정신기능을 腦에 귀속시키고 있는 바 한의학에서는 心에 귀속시키고 있어 서로 다르므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腦의 의미 또는 腦와 心臟과의 상관성에 대해 형태학적 특성과 장상학 이론에 따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腦는 心의 神明機能이 外部로 露現된 構造物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腎의 外腎과의 관계와 대비하여 外心이라 칭할 수 있다. 역으로 神明機能의 物的 토대는 心에 있으나 神의 虛明至微한 屬性에 의해 最上의 陽位인 腦로 上行하여 居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心과 腦의 정신기능적 상관성은 동서양의 辭典的·文字學的 高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으며 腦를 外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藏象論 뿐만 아니라 인체의 형태학적 관찰이나 九宮八風論, 道家에서의 頭腦 이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해방법은 뇌의 병리가 한의학적으로는 心火와 心血 및 腎精과 관련이 깊음과 또한 脾胃 肝肺等과의 差等的 關聯性을 갖게 됨을 알려주며 동시에 인간이 고유하게 갖고 있

는 精神과 心理方面의 고도로 복잡한 機能作用들을 보다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나아가 五臟中心理論體系의 보완에 一助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全秉薰 著, 精神哲學通編, 明文堂, 서울, p. 46.
2. 池圭鎔 著, 새로운 한의학터따기, 일중사, 서울, p. 231.
3. 房玄齡 注, 管子,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p. 1989, p. 128.
4. 說文解字, 段玉裁, 대성문화사, 서울, p. 424.
5. 박찬국 역, 臟象學, 성보사, 1992, p. 165, p. 167.
6. 范行准 著, 伊廣謙等 整理, 中國病史新義,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89, pp. 45-58.
7. 范行准 著, 伊廣謙等 整理, 中國病史新義,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89, p. 62.
8. Arthur C. Guyton, Textbook of Medical Physiology, 6th ed., W B Saunders, p. 690.
9. 徐鳳延 外7人공저, 心理學概論, 博英社, 1985, p. 76.
10. 홍대식 역, 심리학개론, 박영사, 1983, pp. 280-81.
11. 김우점, 인체의 생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p. 16.
12. Jean Marx, ALZHEIMER'S DISEASE: Bad for the Heart, Bad For the Mind?, Science, 294(5542), 2001, pp.508-509.
13. 성호경, 이종훈, 김기환, 조 경우, 엄용의, 엄대용, 김종수, 김진: 생리학, 의학문화사, 1997, p. 128, 658.
14. 許 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1, p. 74.
15. 許 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1, p. 201.
16. 韓方病理學, 전국한의학대병리학교실 편, 한의문화사, 2000.
17. 許 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1, p. 783.
18. 張其成主編, 易學大辭典, 華夏出版社, 北京, 1992, pp. 389-90.